

북한 결핵, 출구는 어디에?

국제원조기구는 다제내성결핵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북한 정부 또한 하루빨리 국제적인 원조를 꾸준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결핵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받았으며,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제공받지 못하는 많은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결핵 프로그램을 도와온 WHO, UNICEF, The Global Fund 등과 같은 국제원조기구들이 다제내성결핵이나 진단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1차적인 결핵치료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결핵에 대하여는 서투른 치료가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질병을 악화시키고, 악순환을 일으킨다.

다제내성결핵은 대략 2000년도 페루에서도 유행하였고, 당시 의료기관 사이에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다제내성결핵 환자에 대한 집중보다는 일반적으로 결핵치료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여 이들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사망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제내성결핵이 공기를 따라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국제 의료 관련 단체는 결핵

관련 모든 기준을 올바르게 치료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기준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핵내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결핵치료약으로 모든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좀 더 다제내성결핵에 대하여 많은 치료를 하려는 입장으로 바꾸었지만, 국제원조기구가 하루 빨리 다제내성결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모두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요구된다. 유진벨재단의 경우, 북한 다제내성결핵환자를 매년 대략 500여 명 가량 결핵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고 그들에게 다제내성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높아지고 있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자금과 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핵환자의 증가에 대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정부 또한 하루 빨리 국제적인 원조를 꾸준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

<http://blog.naver.com/12young16/220012236810>

대한민국은 결핵 후진국?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 아니라 잊혀진, 질병이다. 언제든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발병할 수 있으므로 바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가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질병, 결핵.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핵에서만큼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결핵 후진국”이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한국인은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다.

국가도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민의 영양 상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어째서 결핵 환자는 줄지 않고 특히나, 젊은 층의 발병률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기만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려 대학입시나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이 결핵에 걸리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또, 결핵을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여겨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를 소홀히 해서 결핵치료약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등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결핵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감염내과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환자 1명이 10~15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다제내성결핵의 감염력은 높다. 따라서, 과도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 저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결핵하면 기침하고 피를 토하는 폐결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결핵유형 중 하나로 뼈가 녹는 척추결핵이 있다. 결핵균은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와 폐에서 증상을 일으키지만, 균이 혈액과 림프액을 따라 척추로 옮겨가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결핵으로 진행된다. 전체 결핵 환자의 10% 내외에서 폐가 아닌 다른 곳에 결핵균이 감염되는데 그 중 절반이 척추결핵이다.

결핵균이 척추로 이동하는 이유는 척추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척추 결핵이 생기면 초기에는 미열과 식은땀, 식욕부진과 같은 몸살 기운이 나타나고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허리통증을 겪는다. 이를 방치할 경우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척추 주변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굽을 수도 있다.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 아니라 잊혀진 질병이다. 감염병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발병할 수 있다. 결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http://mcf015.blog.me/220018430218>

※ 이 글은 협회 홍보기자단 케어미 2기로 활동 중인 분들이 취재 및 자료를 모아 작성한 원고로 본회의 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